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마크 네포 지음
 박윤정 옮김
 흐름출판 펴냄
 1만6천원



“당신은 재미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나는 재미할 기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당신은 비가 되고, 나는 한 줌 소금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 이곳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 <중략> 내일이면 죽어 재미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 우리를 잡기 위해 밧을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어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깨달음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 <중략> 바로 지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사랑하라.” 마크 네포의 시처럼 읽는 에세이다. 책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친 것,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이를 계기로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또 그녀는 자신의 잡지 <오 메거진>에 두 차례나 마크 네포에 관한 글을 직접 실기도 했다. 그녀는 그를 “두 번이나 암을 이겨낸 후, 순수하게 가슴으로 글을 쓰는 작가이자 철학자”라고 소개했다. 저자 마크 네포는 30년 넘게 영성과 시 분야에서 강의한 철학자다. 그의 책을 생일 선물로 받은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마다 그의 가르침을 하나씩 읽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가슴을 열고, 세계를 변화시키며, 현재의 삶에 충실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장 ‘되찾아봄’ 12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은 매일매일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저자 마크 네포는 암을 앓으면서 큰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암을 이겨내면서 그의 영혼은 활짝 깨어났고 마음을 챙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됐다. 그런 만큼 책은 지혜와 통찰, 순간의 골수는 물론 시간의 빠대까지 빨아들이는 뜨거운 열정을 가르쳐준다. 또한 이런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더 없이 좋은 일깨움이 된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이동 중이나 아침 저녁으로 자기만의 재충전 시간에 읽으며 ‘치유’ 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유의 글로 채워져 있다. 책의 형식은 저자가 의도한 것이다. 책의 형식은 매일매일 차례로 읽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서 읽을 수 있게 했다. 저자는 “정말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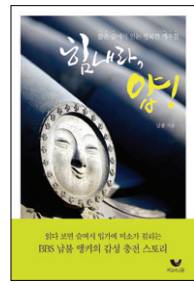
점은 즉각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이거나 친구처럼 매일 이렇게 읽는 것”이라며 “어느 쪽을 읽든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오래된 문제들과 쉽게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하루를 돌아보며 정리할 때 등 짧지만 깊은 텍스트는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을 듯하다.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동반자나 영혼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본문의 내용을 직접 체험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지혜의 글들을 모으는 일은 오솔길을 거닐다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돌에 대해 묵상하다가 가르침을 얻으면 그 돌을 가방에 집어넣고 다시 길을 갔다. 이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가방을 내려놓다가 깜짝 놀랐다. 길에서 반짝이던 돌들이 어느새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언제나 생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저자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필요한 인생의 지혜는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강물의 표정이 빠르게 변할 때는 아름다운 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빠르고 소란스러운 흐름은 모든 것의 특별한 맛을 완전히 가려버린다. 세상의 강물이, 우리 마음의 강물이 고요할 때만 모든 것이 특별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고요함’이 절대적으로 수급되어야 할 지혜임을 책은 말한다.

저자는 바닷물이 모래밭에 튀구는 조약돌을 휩쓸고 지나가듯, 책이 사람들에게 자극과 새로운 힘을 주길 바라고, 바닷물에 쓸리고 닦여 윤이 나고 부드러우며 투명해 존재가 되기를, 살며 사랑하며 지극한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며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원 기자 wanholl@hyunbul.com**

짧은 글에서 얻는 행복한 깨우침

힘내라 얌!

남불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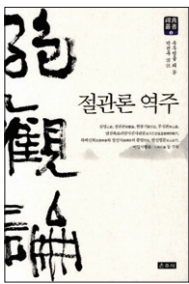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모두에게 불성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일깨우려 오셨습시다. 너와 내가 나뉘고, 남북이 나뉘고, 종교가 나뉘고, 부모형제간에도 나뉘는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나투시니, 우리 모두는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정주 불교방송 프로그램 ‘총부처님 967’의 남불 앵커의 글모음이다. 저자에게는 힘든 시절이 있었다. 한창 앞날에 대한 설개로 꿈에 부푼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패스를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그를 덮친 교통사고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를 병원에 묶어 두었다.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로 인해 한 집안의 가장이 된 후에도 힘든 삶은 계속 됐다. 그렇게 힘든 삶 속에 있었던 그것이지만 언제나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가 쓴 첫 방송 멘트는 “나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였다. 책은 무수히 번주되는 그의 ‘할 수 있다’이다. 책은 힘든 삶을 견뎌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진솔하고도 강인한 메시지로 독자의 마음을 파고든다. 외로움과 고단함을 쓰다듬고 안아주며,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일상으로, 때로는 선문답으로 이를 극복하고 한층 더 밝은 삶으로 이끌어 주는 짧지만 에너지 넘치는 글들이 가득하다. **박재원 기자**

선종의 종지를 밝히는 초기 선종 법문들

절관론 역주

우두법용 외 지음 | 박근주 역주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된 선종의 심지법문과 둔황에서 새로 출토된 선종법문들을 해설과 함께 펴냈다. <심명>, <절관론>, <현종기>, <무심론>, <남천축보리달마선사관문>, <하택선화와 정선사의 문답>, <안심법문>, <이입사행론>을 수록했다.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된 중국 선불교는 육조혜능을 거치면서 중국불교의 가장 큰 흐름이 됐다. 한국 불교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선불교가 큰 흐름이다. 선의 종지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로 이야기 된다. 이처럼, 선의 핵심은 바로 ‘마음(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선종의 기본 가르침이 ‘교(教)에 의지하여 종(宗)을 깨닫게 한다(藉教悟宗)’는 것이므로 선종이 본래 교

선종 초기 선사들의 선법 정리

<절관론> <심명> 등 6종 수록

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 너머의 의미에 천착하여야 하는데, 초기 선사들이 방대한 가르침에서 가려 뽑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심지법문들은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해능 이후, 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선사들의 목소리는 익숙한 반면 초기 선사들의 목소리는 아직 낯설다. 책은 그중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을 가려 뽑아 번역하여 엮고, 그 요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 후반기로부터 수당 중기에 이르는 교학의 범람 시대 속에서 대승의 심의(深義)를 직지(直指)하여 자신(自心)에서 요지(了知, 깨달아서 앎)하게 하는 간략한 심지(心地)법문이 초기 선종 선사들에 의해 자주 실려되었다. 1900년 둔황에서, 종전에 전승되어 온 것보다 더 많은 수십 종류의 선종 심지법문들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본은 국내에 번역 소개된 바 있다. 간략한 심지법문은 대승의 심의를 어느 정도 회통하

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책은 심지법문을 온전히 요지하기 위한 해설이다. 책은 2004년 출간됐던 것을 수정과 보완을 거쳐 다시 출간한 것이다.

도신의 법을 이은 우두법용의 <심명>은 그 분량이 적고 내용이 간단하지만 달마선의 요지가 명료하게 개시되어 있어 가히 선종 심지법문의 압권이라 할 수 있다.

<절관론>은 1900년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선종 문서 가운데 하나로, 모두 필사본인데 현재 6종이 전한다. 저자에 대해서는 보리달마 혹은 우두법용 등의 몇 가지 설이 있다. 절관(絶觀)이란 마음을 일으켜 어떠한 법상(法相)을 관할이 없는 수행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행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요지하는 행이다. 때문에 이 법은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및 후대에 이르기까지 선종의 공통된 심지법문이 되었다.

<현종기>는 육조혜능의 제자인 하택선화의 여러 저작 가운데 하나로, <전당문> 권916과 <경덕전등록> 권 30에 실려 전한다. 여기서는 전당문에 실린 것을 저본으로 했다. <현종기>에서 말하는 선법 또한 앞의 <심명>이나 <절관론>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현종기>에서는 뒷부분에서 가사(袈裟)를 전하

는 것으로서 심인(心印)을 전하는 징표로 삼는다는 소위 전의설(傳衣說)을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다.

보리달마의 <무심론>은 선종 종지의 핵심 요인인 무심(無心)에 대해 명료하게 설하고 있는 남종선의 강요서(綱要書)라 할 수 있다.

<남천축보리달마선사관문>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흥인의 제자 가운데 염불선을 주장한 사람의 저작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체로 북종의 점법을 말하고 있으나 또한 돈법의 뜻이 들어 있어 상통된다. 때문에 이 법문은 점법과 돈법의 상관성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하택선화와 정선사의 문답>은 <남양화상문답집정>에 수록된 문답으로, 신화가 비판해 온 점법이 어떤 것인가가 뚜렷히 설명되고 있어 점법과 돈법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달마대사의 법문으로 전하는 <혈맥론> <오성론> <파상론> <심경송> <이입사행론> <안심법문>은 <소실육문>으로 합집되며 전승되었다. 이 가운데서 <이입사행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달마대사의 친전(親傳)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은 달마 이래 초기 조사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한 것은 분명하다. 본서에서는 <안심법문>과 <이입사행론> 두 편만 소개했다. 초기 선종 법문들을 만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4~10/3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민현	현자공현자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샘앤파커스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7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8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9	비움 아름다운 채움	성진	마음의숲
10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자현	불광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031-534-3373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강의중

티빙정도와 유심정도를 포용하는 <일심정도 연불수행>

정목스님 지음
 변형 신국판 | 컬러 | 232쪽
 13,000원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스님이 들려주는 정취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효 대사의 일심정도 연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증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연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스님은 누구나 지 연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도원: T.055-375-5844, 아이티파 (cafe.daum.net/am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a5@daum.net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영주곡기 25mm
 ₩ 65,000

B 타입
 영주곡기 16mm
 ₩ 55,000

심용신앙
 장의
 특허출원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 (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 * 무선 경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